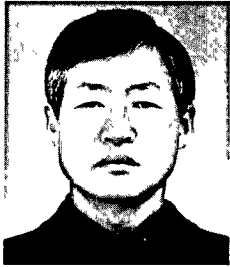


齒藥 鹽礬散

吳 平 煥



五福은 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이라지만 또하나의 五福中에는 健齒도 包含된다고 한다. 이는 齒牙의 重要함을 이르는 것이지만 齒科大學이 一般 醫科大學과 같은 6년제인 것만 보아도 健齒를 爲하여 人間이 얼마나 勞力하고 있다는 것을 알것이며 齒牙의 소중한함을 깨우기 爲하여 나라에서도 6월 9일을 “이의 날”로 지정하여 健齒하자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健齒를 위하여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齒藥을 보면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옛날에는 소금의 양치가 그 전부였는데 지금은 아마 수십가지의 상품화된 치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이를 선택하기도 머리를 짜야 할 판이다.

이러한 혼란속이니 우리 몸에 맞는 값싸고 적당한 치약은 없을까 하고 생각한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에게는 古來로 전해오는 齒藥의 原料는 단연 소금이다.

本人은 오랫동안 이 소금을 이용한 齒藥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왔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이 愛用하는 鹽礬散이라고 命名한 齒藥을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동의보감」 齒牙條에 보면 鹽의 氣는 腎에 들어가고 骨에 들어가서 齒牙를 튼튼하게 한다 이빨을 닦거나 입에 물고만 있어도 좋다고 하였으며, 특히 白鹽은 齒根이 드러나고 齒牙가 흔들리는 것을 治療한다 또 鹽을 가루내어 이를 닦은 다음 더운물로 양치하면 이를 튼튼하게 하는데 좋은데 실천한지 5일만 지나도 이빨이 든든해진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잇몸에서 出血이 있으면 鹽湯으로 養齒하면 좋고 白鹽을 가루로 내어 항상 닦으면 이가 아주 좋아진다고도 하였다

白礬을 불태운 枯白礬은 이빨이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白礬에는 강력한 消毒作用이 있어서 百毒을 풀어준다고 하여 이 時代에도 民間에서는 口內炎에 枯白礬가루를 患處에 撒布하고 있으며 效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 枯白礬을 말벌집(露蜂房)과 同等한 量으로 하여 每 8g 정도씩 물에 달여 따

뜻하게 해서 아픈쪽으로 머금었다가 식으면 뱉어버리곤 하면 곧 낫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소금과 白礬은 口內疾患에 特效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옆에 두고 愛用하는 가루치약은 바로 여기에서 초점을 두었으며 처방도 이 두 가지로 만들었다 白鹽(하얀 꽃소금)과 枯白礬을 10對1의 비율로 혼합하여 極細末한 다음 濕氣가 들지 않도록 보관하여두고 養齒할 때마다 일반 齒藥 代用으로 1日 2回 정도 使用하게 되면 齒牙의 蟲齒 風齒를 豫防하고 健齒되어 五福을 누릴 것이니 어찌 소홀하게 생각할 것인가

특히 飲酒後엔 이 齒藥으로 이를 닦고 나면 아주 좋을 것이다.
原典에 根據한 것이니 모두 試用하여 보시기 바란다.

(서울 중랑구 중학동 307-1 유림한약방 ☎ 02-973-8098)

● 상식 메모

補藥의 誤用

同一한 內傷이로되 勞倦傷은 不足이 하나 뿐이지만 飲食傷은 有餘와 不足의 區別이 있으니 그러하기 때문에 補藥을 誤用하면 곧 甘溫한 것이 濕을 도와 痰을 생기게 하여 嘔吐 泄瀉 腹腸滿 등의 危險한 症狀이 誘發되어 惡化할 수 있는 것이며 推逐劑를 誤用하면 元氣를 거듭 傷하여 下脫하게 되므로 死境에 이를 수가 있으니 利害를 究明한 후에 投用할 것이다. -入門-